



● 꾸밈없는 사람들 워크스테이션 성과 포트폴리오

김정현 제작

● 꾸밈없는 사람들이란?

"꿈을 찾을 시간이 없어요..."

"뭘 좋아하는지 잘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꿈을 찾아요?"

"이 상태로 대학을 가도 괜찮은 걸까요?"

저희가 만난 학생들 중 상당수가 꿈을 찾지 못해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꿈이 없는 상태를 바꾸지도 못한 채 대입을 준비합니다.

● 꾸밈없는 사람들이란?

꾸밈없는 사람들,
꿈이 없는 사람들.

우리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젝트.

꾸밈없는 사람들은 입시, 학업능력 향상, 교과학습 도움이 아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바탕으로 꿈을 결정하는 과정'을 돕습니다!
꾸밈없는 사람들은 지방의, 저소득층, 중도입국청소년 등 **특정의 문제가 아닌**, 지역과 학교급을 불문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청소년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꿈이 없어도, 잘 몰라도 괜찮아!

꿈이 없었던

꿈자락(멘토)

꿈이 없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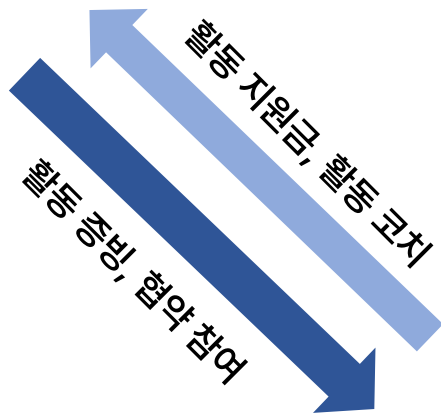
꿈지락(멘티)

꿈자락

불안감 해소, 다양한 동기 부여

꿈지락

봉사 시간 지급, 성취감



워크스테이션

부서소개

운영 커리큘럼 정비 및
매 수업 회차 준비

예산, 회계, 결산 및
지원금 관련 업무

인스타, 유튜브, 에브리타임 홍보
및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업무

연구
개발부

재정
회계부

대외
사업부

- 활동 보고

활동 1.

커리큘럼구성및조직운영

1기 확정 커리큘럼				
참여자	수업자료	꿈자락의 진로...	준비사항	피드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현석 홍지성 윤신 조 최우성(법학과) 허은재 / 학생 / 물리.천문호 (경영대학 경영학과) 김정현 이주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주차_학습지_... 1주차_학습지_... 1주차_템플릿.p... 진로발표.pptx 꾸밈 없는 사람... 꿈자락의 진로... 		<p>1. 내일 오는 학생은 5명. 허은재, 손재원, 송다연, 유채연, 이규민</p> <p>2. 학생 프로필 기준 처음 매칭은 홍현석-허은재 손재원-홍지성or 조윤신</p> <p>이렇게는 하면 좋겠습니다.</p> <p>3. 활동 2,3에 대해 꿈자락의 이야기도 쓰지만, 옆에서 학생이 말하는 것도 전부 기록. 이를 통해 학생 개개인 프로필 만들어나가야함</p>	<p>조윤신 1주차 활동의 심도 있는 진행이 요구됨. 1주차의 성공 여부는 4주차에서 것과 직업의 연결이 얼마나 다층/다각적인지를 통해 알 수 있는데, 대부분 단편적인 연결만을 수행함. 좋아하는 것이라는 범주 안에 포함된 하부한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임.</p> <p>홍현석 어떻게 좋아하는 것을 끌어낼지 그리고 자유롭게 대화를 통해 이끌어낼 의 측면에서 잘하는 게 무엇인지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여하는데... 학생식을 바꿀필요성이 느껴지기도 한다. 서로 다 알거나 친한애들로 구성되어 괜찮다는 생각이 든다. 1주차를 계속 타 차시와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도해여한다. 예를 들어 송다연학생은 그림그리는 것을 좋아하고 디자인 많다고 했었는데 3차시 융합수업에서 빛을이용해 문제를 바라보게 지음.</p> <p>홍지성 좋아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과정은 꼭 필요하고, 결국 이 생각이 확장되 더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인데 학생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으로만 인식하는 것 같음. 그 이유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는 과정이 어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고 이를 좀 더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보임.</p> <p>최우성 지금 작성하는 좋아하는 것의 역할이 전체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한 활동이라는 전에서는 의미미하지만 너무 광범</p>

1

10.3일 사전 협의

전체적인 커리큘럼의 목표를 소개하고 해당 단체의 운영 방침에 대해 모든 구성원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

11.13일 2차 중간 점검

4-5회차 연결이 부자연스럽다는 피드백을 받아 이를 수정하기 위해 회의를 거쳤습니다.

3

11.28일 3차 최종 점검

다음 기수 커리큘럼 보충을 위해 각자 한 학기 동안 활동의 아쉬운 점과 좋았던 점을 말해보도록 하였습니다.

- 활동 보고

활동 2.

7회차 강의 진행



1

10.13 #지금, 꿈지락거리기
꿈지락들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

10.21 #논란이 되는 생각하기
창의력에 대한 생각을 재정립하고 특이한
생각 꼬리물기를 통해 '꿈'에 대한 통념의 반전을
기하여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

10.28 #연결하기
융합적인 사고를 직접 체험해봄으로써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적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독려했습니다.



- 활동 보고

활동 2.

7회차 강의 진행



4

11.4 #꿈과 직업

꿈지락들이 지금까지 진행해온 활동을 바탕으로 도출하는 '좋아하는 것과 직업을 연관시켜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꿈지락들의 도움하에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메일을 써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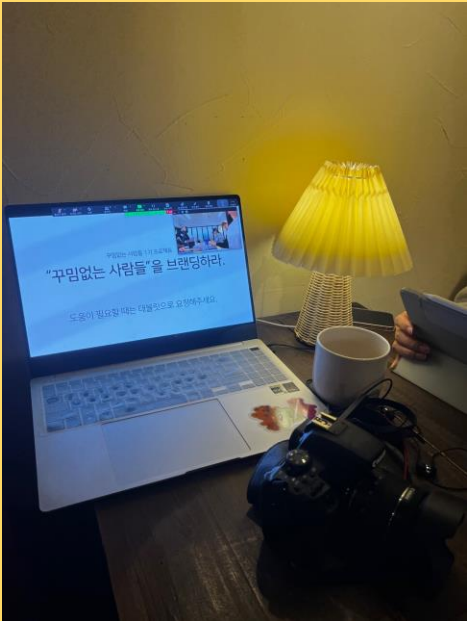
11.25 #단순한 정보를 넘어서

꿈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며 얻은 성과와 느낀 점을 발표하고 일대일 심층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온 어려움을 바탕으로 후의 커리큘럼 또한 정비할 예정입니다.

- 활동 보고

활동 2.

7회차 강의 진행



6

12.2 #프로젝트1: 단체 브랜딩하기
꿈지락들끼리 친해지며 하나의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보도록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꿈지락들이 의견을 나누는 동안 꿈지락들은 장소를 옮겨 대화를 청취하며 최소한의 개입만 하도록 설정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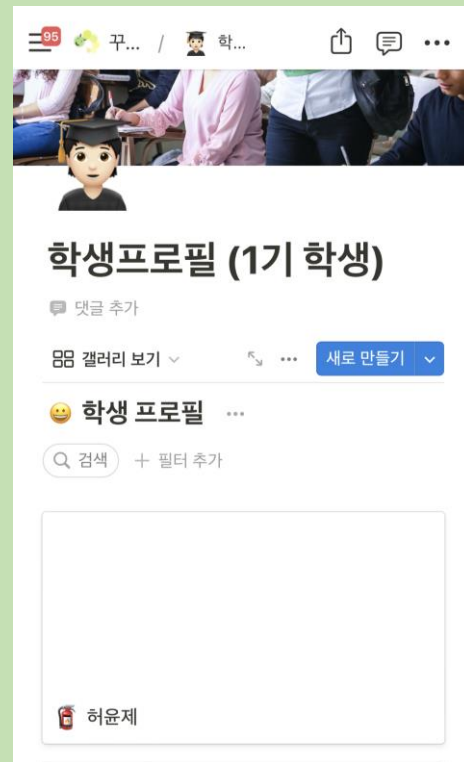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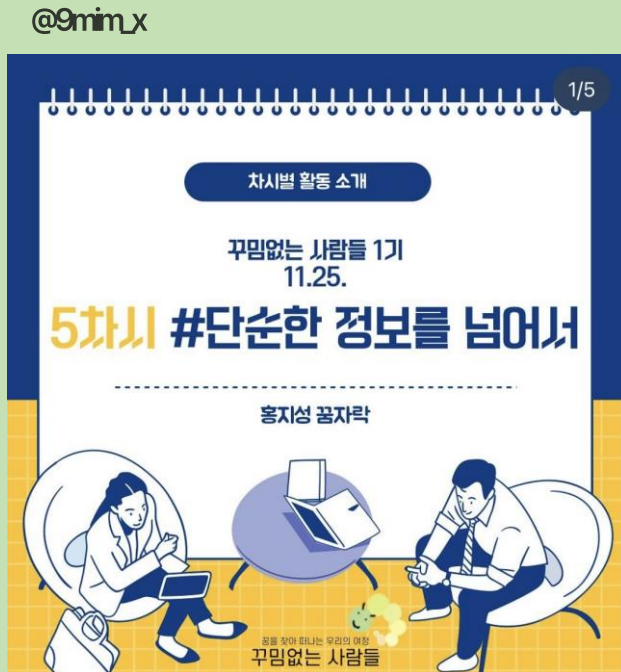
7

12.9 #프로젝트2: 성과 발표 및 공유
한 주 동안 꿈지락들이 고민한 해결책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꿈지락들의 피드백이 이어졌습니다. 7회차 동안 성장한 꿈지락들에게 격려를 전하며 전체 회차를 마무리했습니다.

- 활동 보고

활동 3.

노션아카이빙 & 인스타그램 운영



1

인스타그램에 각 회차 활동과 소감을 정리하여 업로드하였습니다.

2

노션을 통해 적극적인 커리큘럼 피드백과 학생 관찰 일지를 작성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정비와 운영을 투명하게 관리하였습니다.

• 활동 보고

활동 4.

꿈지락 활동 보고서 작성 후 학부모님들께 전달

꿈지락이 본 꿈지락

각 주차마다 말아서 작성한 주차별 피드백을 포함한 학생 프로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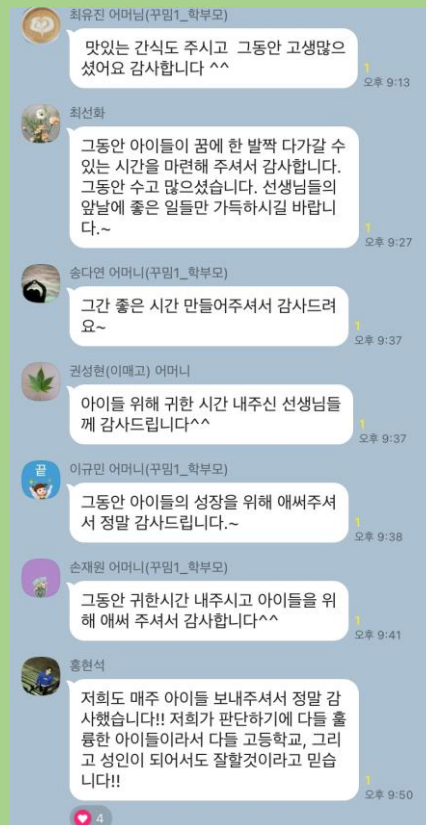
각자 최대한 쓸 수 있는 모든 학생 작성

들어가야 할 내용

1. 각 주차 활동에서 꿈지락이 어떤 활동을 했는가(활동지에 어떤 말을
2. 꿈지락이 보기에 잘한 활동, 그 이유
3. 꿈지락 시선에서 본 꿈지락에 대한 장(단)점/발전가능성(분야)
4. 꿈지락이 고등학교 가서 추천해줄 만한 활동 또는 추가로 찾아보
5. 해주고픈말(부모님, 학생 구분해서) *부모님께 드릴 말씀은 길게
6. 꿈지락 활동 사진

작성 예시

1. 000꿈지락이 1주차에서는 ~~한활동을 했고요~~5주차에는
했는데~~했어요. 000꿈지락은 N주차에서~~발표를 했는데
생각해서 매우 잘한 발표/활동/아이디어 라고 생각합니다.
(1, 2번을 합쳐서 작성)
2. 000꿈지락은 ~~한것을 봐서는 ~~하는쪽에 장점/특기가 있는
보완한다면 더 그 특기가 극대화될거 같아요~~한점에서는
충분히 극복가능합니다. ~~한쪽으로 발전할수 있을거 같은데



1

노선으로 정리한매화차활동일지를
문서형태로 정리하여
각학생별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2

다음주에 있을 대학교 현장탐방이
종료되었을 시점에 학부모님들께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활동 소감

워크스테이션에서 도움받은점

워크스테이션을 통해서 한 학기동안 저학
업할 수 있었던 의의를 소개합니다!

봉사를 표방한 활동이므로
수익창출이 어려워
지원금이 절실했던 상황에
워크스테이션의 사회혁신장학금이
활동을 운영하는 데 핵심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100만원
이라는 지원금

다양한
네트워킹
기회

사회혁신
프로젝트
경험자의
피드백

활동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
앰배서더 특강이나 워크스테이션에
마련한 멘토링에 참여하여 고민을
나누고 조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팀들의 아이디어를 살펴보고
이야기 나누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꾸준한 자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모두 꿈꿀 수 있도록,
꾸밈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